광주교육청, 전 직원 청렴 실천 한마음

‘청렴 특별강조기간’ 운영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 조성
부패취약분야 청렴의식 향상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최근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강조기간’을 운영했다. 청렴 특별강조기간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고, 부패취약분야와 관련한 청렴의식을 키우기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에는 ▲승진 및 인사이동 명목으로 금품·선물(간식 등) 제공 또는 수수행위 제한 ▲인사·계약 등 부패취약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준수 ▲직무관련자로부터 축하 화분 등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 및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지인·상급자·외부인 등을 통한 간접 청탁 금지 등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전 직원 청렴·갑질 자가점검 실시, 각 기관 운동부, 인사분야 등 부패취약분야 청렴교육, 청렴 위반 사항의 신고 절차 안내 등 청렴도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인사 이동 기간을 맞아 지난 1일에는 본청 북카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와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

산하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도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2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부 청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렴 나무 열매 달기 캠페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정책 민간전문가 컨설팅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교육 강의 등 순으로 진행돼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월 26일~7월2일까지 AI를 활용하여 청렴, 반부패 등 긍정적 가치를 담은 ‘AI를 활용한 청렴테마송 공모’를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도 지난 1일 학생의회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대나무 화분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으며,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원도 같은 날 자성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청렴 실천을 선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는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모든 교직원이 청렴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광주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 관계자들이 최근 본청 북카페에서 청렴문화정착 캠페인을 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지난 4일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전남도교육감, 전남경찰청장과 자치경찰위원장이 학생 대표들에게 불법촬영 탐지카드를 전달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 ‘불법촬영 ZERO’ 교육 나섰다

중·고등학교에 ‘탐지 카드’ 배부
학교 전담경찰관 연계 교육·실습

전남교육청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불법촬영 탐지카드’를 배부하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불법촬영 Zero, 행복 Dream’을 주제로 탐지카드 전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을 비롯해 학생대표와 1·2학년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전달식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윤종권 목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강사로 나서 ▲학교폭력 예방 ▲불법촬영의 심각성과 처벌 규정 ▲탐지카드 활용법 등을 중심으로 특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불법촬영 탐지카드는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카메라 렌즈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도구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카드는 앞으로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배부되며, 각 학교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해 예방 교육 및 실습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061-260-0415)로 하면 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학생들이 불법촬영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예방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학교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학사행정시스템 ISMS 인증 획득…안정적 학사운영 강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가 인증
광주·전남 지역 대학 중 유일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2028년 6월 17일까지 3년간이다.

ISMS 인증은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가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부여되는 국가공인 인증제도로, 대학의 정보시스템 보안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조선대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 등 총 80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 결과, 광주·전남 지역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학사행정시스템 운영(학적, 학사, 수강신청)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의 핵심 학사행정 시스템이 국가의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대는 ISMS 의무 인증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받아왔으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오픈을 앞두었던 2024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취약점 진단, 위험성 평가, 보안정책 정비, 내부 모의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었다.

강문수 정보전산원장은 “이번 ISMS 인증은 조선대학교가 정보보호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보보호는 단발성 절차가 아닌, 꾸준한 관리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춘성(왼쪽) 조선대 총장이 최근 조선대 정보전산원 염현주 팀장, 강문수 원장 등과 학사행정시스템 ISMS 인증획득을 기념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조선대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사행정 시스템의 보안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학사행정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한일 유학생 장학사업 2년 연속 선정

교육부·日 문부과학성 공동 추진
교과 기반 정규 교환 과정 운영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일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장학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양국 정부 간 체결된 교육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추진되며, 한국 대학생이 일본 협정교에서 정규 교환학생 과정을 이수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학사업 대상인 전남대 학생들은 4개월간 월 70만원의 학업장려금과 왕복 항공료 실비를 지원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 연수형이 아닌 교과 기반의 정규 교환 과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전남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지역의 일본 협정교들과 협력하며 파견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한일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과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등 주요 국제재정지원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남대는 단순히 학생을 파견하는 것을 넘어, 초청형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여 양방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2024년부터 일본 자매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여름학교 2기 특별과정’을 신설하여 한국어 집중 연수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교류사업을 통해 일본 학생들을 초청한 AI 전공 특화 강의, 실험실습, 연구기관 방문 프로그램도 2년 연속 성과를 내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조진형 대외협력처장은 “2년 연속 선정은 전남대가 국제화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실질적인 양방향 교육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